

전남대 공과대학, ‘SE장학생’ 30명에 장학금 3천만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한중훈)은 2일 오전 공대 4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SE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수여식에는 SE장학금 기부자인 ㈜SE 박현희 대표가 참석해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위상을 높인 학생 30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전남대 공대

SE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5년 SE장학생은 기부자의 인재 가치관을 반영해 자기주도적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추고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며 공과대학의 위상을 높인 모범적인 학생들 가운데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학과 추천과 대학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광주활동가상’

(사)광주NGO시민재단(이사장 정영일, 이하 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광주활동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열렸다. 올해 수상자는 최낙선(사진 왼쪽)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다. 지난 32년 동안 환경과 생태 분야 한 길을 걸어온 활동가로 광주를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시민협력위원장, 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최낙선 상임이사는 “이 상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활동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시키고 시민들에게는 공



익활동의 소중함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활동가상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광주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해온 공익활동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민주당 박미정·임미란 광주시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미정(동구2)·임미란(남구2) 광주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주최한 ‘202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 크 풀뿌리 우수 의정사례’ 시상식에서 나란히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 공공책임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도와 등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미란 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 시설 약취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공론화한 점이 주목받았다. /도선민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전남언론인회’ 사단법인 출범…강연·포럼 등 소통 강화

원로 언론인단체인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김성·이하 언론인회)가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올해 창립 52돌을 맞은 광주전남언론인회는 최근 5·18기념재단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성 회장 등 현 집행부 연임도 의결했다. 언론인회는 올해 전문가 초빙 지역발전 연구 토론회, 지역 이슈 해법을 모색하는 강연과 포럼 활성화, 지역내 기관·단체들과의 소통 강화 등을 추진키고 했다. 또 1980년대 언론탄압의 실상을 해부하는 ‘언론보도 검열’ 책자 발간, ‘광주·전남언론사’ 속편 발행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광주전남기자협회와의 공조 강화와 함께 ‘대구경북언론인회’와의 유대 증진 등 영호남 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성 회장은 “창립 52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올해 사단법인화 원년을 맞아 공공성과 전문성



을 한층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4년 창립한 광주전남언론인회는 광주전남기자협회 출신 지역신문·방송·통신

사의 은퇴 언론인들 1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내외교류와 홍보, 언론 진흥 사업, 은퇴 언론인들의 복지 증진, 친목 도모와 정보 공유, 저술활동 지원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과기원 이병하 교수 ‘한국광학회 학술대상’ 수상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 임기철)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이병하(사진)교수가 국내 광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7회 한국광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광학회 학술대상은 광학 관련 학문과 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광학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단 한 명에게만 수여된다. 1999년 GIST에 부임한 이병하 교수는 광학 분야 기초 연구부터 응용·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광섬유격자 소자 및 광센서 시스템, 광결맞은 기반 다층이미징, 광음향 기반 3차원 이미징 및 비파괴 검사 등 광학의 핵심 분야에서 학술적 탁월성과 산업적 실용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호남대 이종상 계장, 교육부장관 표창

호남대학교 홍보실(실장 한 선)의 이종상 계장(7급·사진)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업무 추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주관의 ‘2025년 홍보 분야 유공 표창 대상자’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 한국대학홍보협의회이사로도 활동중인 이 계장은 2008년 호남대학교에 입사한 이래 17년간 홍보실 실무자로 재직하며 사진 홍보, 대외 협력, 대학 신문 발간 등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헌신해 왔다. 이 계장은 “앞으로도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과 상생’의 마음가짐으로 대학 홍보에 앞장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전남도 ◇3급(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 파견 서형빈 ◇3급(국장급) 전보 ▲인재육성국장 박종필 ▲자치행정국장 강종철 ▲인재개발원장 고미경 ◇4급(과장급) 승진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 정재용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45 KBS 뉴스(광주)	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뽀 좋아좋아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토요일 미니시리즈 은애하는 도적남아(재)	1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45 팬티하이어2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뉴스 45 쌍둥이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00 테마스페셜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재) 25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함께, 우리 1회(재) 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3]		00 KBS 뉴스타임 15 월24 45 캡슐세이버(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베베핀 30 첫 번째 남자(재)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00 생방송 투데이 50 네모세모 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35 시사터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오은영 리포트 가족지옥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00 말자쇼	40 판사 이한영(재)	10 아니 근데 진짜!
[11]	35 인생이 영화(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더 로직(재)		4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1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①:1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MBC 뉴스 25 20 판사 이한영(재)	45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슈퍼왕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덩동덩 덩동덩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스 해양구조대 09:20 자이언트 팽TV(재) 09:40 PD로그(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재) 15:40 마사와 곰 15:55 불룩스 16:10 덩동덩 덩동덩(재) 16:3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00 페파 피그 17:10 메카 빌더 17:40 티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팽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재) 20:40 세계테마기행 <맛의 지도, 일본 소도시 여행 -새해의 맛> 21:35 한국기행 <겨울엔 울릉도 1부 여정의 서막, 울릉 앞 포항>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세계 극한직업 -추석훈의 밥값은 해야지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9일(음 12월 22일 甲寅) ☎010-9790-8237

48년생 실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60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 72년생 추구해 왔던 가치나 지향하고 있는 기운이 점점 소멸해야가는 판국을 뒤흔칠 것이다. 84년생 상호 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96년생 융통이 쉬워지면서 성사된다. 08년생 속아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5, 71	42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54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뒤흔칠 때가 되었다. 66년생 마야 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78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90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02년생 함께 나아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행운의 숫자 : 08, 57
37년생 기본 노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49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61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73년생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전행하자. 85년생 두루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97년생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3, 86	43년생 절대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55년생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 67년생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미래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79년생 결과가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익하다. 91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03년생 알차고 보람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8, 91
38년생 그대로 놔둔다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50년생 가장 시급한 일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라. 62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74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다. 86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98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행운의 숫자 : 51, 84	44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길을 수박에 얹다. 56년생 제대로 핵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68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80년생 희망의 정황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9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04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잡으로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0, 89
39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51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63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니라. 75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87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99년생 다 양하게 구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5, 96	45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7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요연해지느니라. 69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니라. 81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93년생 현상감 있는 실제적 요령이 절실한 때이다. 05년생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27, 95
40년생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 뒤라. 52년생 유기적인 관계의 설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64년생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 76년생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88년생 오류를 낱알이 수정한다면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클 것이다. 00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판이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55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58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70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긋지 않으면 정래에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 요소로 된다. 82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94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06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1, 87
41년생 확실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53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느니라. 65년생 겉으로는 봉합되어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제각각임을 알자. 77년생 맹목적인 판단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속출할 수도 있음을 알라. 89년생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01년생 불협화음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03, 68	47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59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한 실행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71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83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자. 95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입장이다. 07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다 음과정으로 넘어간다. 행운의 숫자 : 32, 56